

2021년 북한의 시장 물가 및 환율의 추세와 특징

정승호 |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조교수 | shjung@inu.ac.kr

I. 머리말

2021년 북한의 시장 물가와 환율은 북한경제 연구자들에게 많은 의문을 던져 준다. 2017년 UN 제재 강화 이후 경제 여건이 이미 취약해진 상황에서, 2020년 1월부터 북한 정권 스스로가 국경봉쇄라는 더 강력한 경제봉쇄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처럼 제재와 코로나19로 경제가 큰 곤경에 처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제 현상은 이란이나 터키의 사례와 같은 물가와 환율의 급등일 것이다. 그러나 국경봉쇄로 공식, 비공식 무역이 1년 이상 중단된 상황에서도 북한 내 쌀가격은 안정화되었으며,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원화 강세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예상에서 벗어난 가격 및 환율의 추세를 설명하기 위해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소득 하락, 당국의 개입, 탈달러라이제이션(de-dollarization) 등 다양한 설명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이 아직 가설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아직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시장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통화량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에 해석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북한의 물가는 북한 원화의 통화량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 유통되고 있는 외화통화량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북한주민들 사이에 거래 목적으로 유통되는 외화량과 자산 목적으로 보유한 외화량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 역시 현재로서는 가용하지 않다.¹⁾

1) 북한 외화보유량의 규모는 국경봉쇄가 해제된 이후 대중수입량의 증가를 통해 어느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 역시 증거에 기반하여 2021년 시장 물가 및 환율 추세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에 제시된 여러 설명 중 경제학적 이론과 정황적 사실 등을 종합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다만,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점을 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물가 안정의 추세가 10년 가까이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통화 당국은 상당히 보수적인 통화정책을 펼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즉, 조선중앙은행이 북한 원화에 대한 발행량을 상당히 제한하였다는 가정이다.²⁾ 두 번째는 2020년 국경봉쇄 이후 북한 내부 유통 외화량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국경봉쇄로 무역이 중단되면서 북한의 외화수지에도 큰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에서 유통되는 외화량 역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이와 같이 원화, 외화 통화량에 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함으로써, 최근의 물가 변동에서 통화적인 요인을 배제하고 수급 등 실물적 요인과 당국의 정책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곡물, 유류, 환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분석에는 KDI가 『Daily NK』로부터 구매한 시장물가 월별 데이터 자료(이하 KDI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밀가루, 설탕, 콩기름 등 수입 식료품의 가격 추이는 같은 Daily NK 자료이지만, 분기별로 제공되는 농촌경제연구원의 ‘북한농업동향’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국제가격과의 비교를 위해, IMF, CEIC, 석유공사, 농어촌공사 등의 가격자료도 함께 참조하였다.

II. 시장물가

시장물가는 품목의 중요도에 따라 곡물, 유류제품, 수입 식료품 순으로 추세를 살펴보았다. 곡물의 경우 쌀가격은 4,000원 중반에서 안정세가 지속하였다. 이는 제재와 국경봉쇄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의 곡물 생산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였고, 북한 당국이 비축미를 공급하는 등 정책적 개입이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옥수수 가격은 2020년 1,500원대에서 2,500원대까지 상승하였고, 쌀과의 상대가격도 이전(2018~20년)의 40% 수준에서 50% 수준 정도로 높아졌다. 이와 같은 옥수수 가격(또는 상대가격)이 상승한 것은 시장활동이 위축되면서 북한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유류가격 역시 UN 제재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안정된 추세를 보였다. 이는 생산 감소로 인한 수요 하락의 요인도 있겠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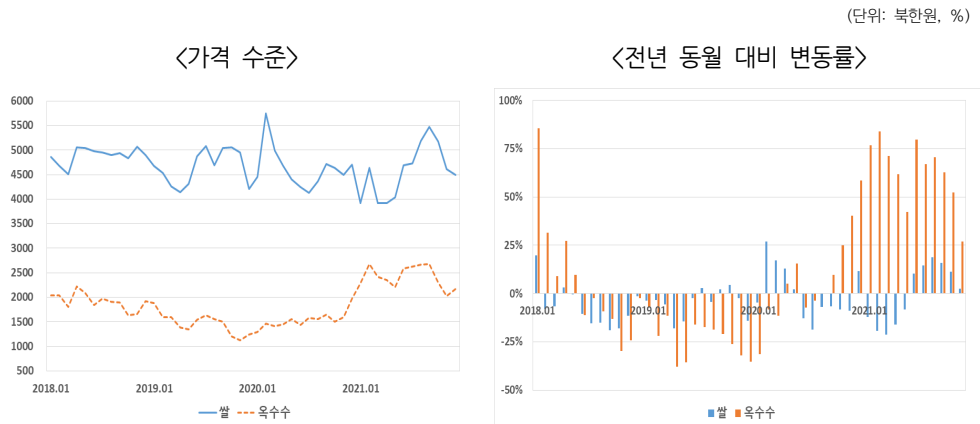
2) 2015년 개정된 중앙은행법에서는 중앙은행의 주요 기능으로 '화폐가치 안정'을 명시(29조)하였고, 중앙은행 주요 업무로 기준이자율에 더해 '기준 환율 제정'이 신설(30조)되었다. 이는 중앙은행의 역할에서 화폐가치 안정을 강조하는 것으로써,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보수적 통화정책의 시행 가능성을 시사한다.

해상 밀수 등의 방법으로 기본적인 공급량이 확보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 곡물

[그림 1]은 2018년 이후 북한의 주요 곡물인 쌀과 옥수수의 가격 수준과 변동률을 보여주고 있다. 쌀의 경우는 기간 평균인 4,500원을 기준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2021년 상반기에는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하락으로 반전되었다. 이에 비해, 옥수수의 경우는 2020년 1,500원대에서 2021년 2,500원대까지 상승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그림 1]의 오른쪽 패널에 있는 전년 대비 변동률에서 좀 더 분명히 확인된다. 쌀가격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지만, 옥수수 가격은 2021년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쌀가격은 국경봉쇄 이후에도 대체로 $\pm 25\%$ 의 적은 변동을 보였지만, 옥수수의 가격은 $-30\% \sim +75\%$ 까지 상대적으로 큰 변동폭을 나타냈다.

[그림 1] 북한시장의 주요 곡물 가격 추이



자료: KDI 데이터.

쌀과 옥수수 가격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곡물 가격의 추세는 예년과 비교하였을 때 안정적인 패턴이 지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세는 기존 예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2020년의 국경봉쇄로 사실상 식량 수입이 중단되었고, 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국내 생산도 감소하면서 2020/21년 식량 총공급량은 전년 대비 100만톤 가량 감소하였다(표 1 참고). 이에 근거하여 2021년도에는 식량 수급 악화 및 가격 상승이 전망되었다.³⁾ 실제 2021년 전반기에는 쌀, 옥수수 가격이 모두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하반기에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여기서 한 가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2020/21 식량 생산량(489만톤)이 예년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인가?'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평년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내 생산량만 비교하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2012~20년) 평균인 481톤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또한 이러한 생산량은 집권 이전 시기의 10년(2000~09년) 평균인 438만톤에 비해 대략 50만톤 정도 늘어난 것이다(FAO Stat). 2019/20년도의 식량 생산량이 이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2020/21년 생산량 감소가 상대적으로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평균 수준의 생산량을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2020/21년 생산량 수준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초 수요량 정도는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북한 당국의 정책적 노력도 곡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 당국은 전시 비축미를 절량세대(곡물이 끊어진 세대)를 비롯해 지방의 기관 기업소에 공급하는 한편, 쌀 시장가격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⁴⁾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 당국이 쌀가격의 안정을 위해 비축미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⁵⁾ 밀가루, 설탕 등 수입 식료품의 가격이 급등한 것에 비해, 곡물 가격이 안정화된 배경에는 주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곡물에 대한 당국의 개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북한의 식량 생산량 및 수입량 추이

(단위: 천톤)

구분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총공급량 (A+B)	4,568	5,035	4,770	4,355	5,853	4,889
국내생산량(A)	4,523	4,947	4,722	4,170	5,851	4,889
- 가을 수확량	4,160	4,637	4,326	3,863	5,423	4,423
- 겨울·봄 수확량	363	310	396	307	428	466
대중 곡물수입량 ¹⁾ (B)	45	88	48	185	2	0
- 쌀	42	37	44	162	1	0
- 옥수수	3	51	4	23	1	0

주: 1) 쌀, 옥수수 수입량의 합. 곡물연도를 감안하여 뒤의 연도를 기준으로 수입량을 포함시켰음. 예를 들어, 2015/16 곡물연도는 2015년 11월~2016년 10월까지를 의미하므로, 뒤의 연도인 2016년을 기준으로 곡물수입량을 포함시킨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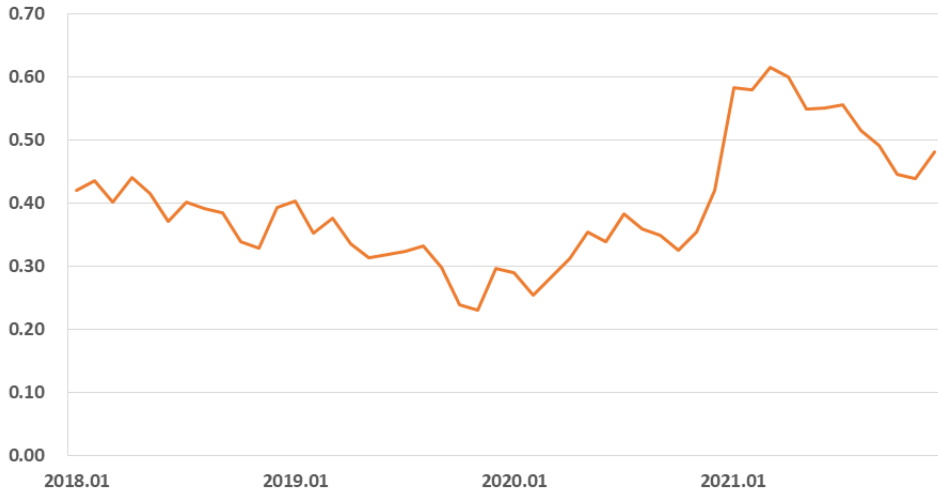
자료: FAO GIEWS update 각년호, KOTRA.

3) FAO는 식량 공급량(498만톤)과 수요량(595만톤) 차이를 통해 식량 부족량을 106만톤으로 추정하여,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식량 부족량을 가장 크게 추정하였다(FAO, "The DPRK food supply and Demand Outlook in 2020/21," GIEWS update).

4) 『이데일리』(2021. 8. 3).

5) 『뉴스시스』(2021. 8. 9).

[그림 2] 북한시장의 쌀과 옥수수의 상대가격 추이



자료: KDI 데이터.

한편, 쌀에 비해 옥수수 가격의 상승세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쌀가격에 대비한 옥수수의 상대가격은 2018~20년 중 30~40% 정도였으나, 2021년에는 50~60%까지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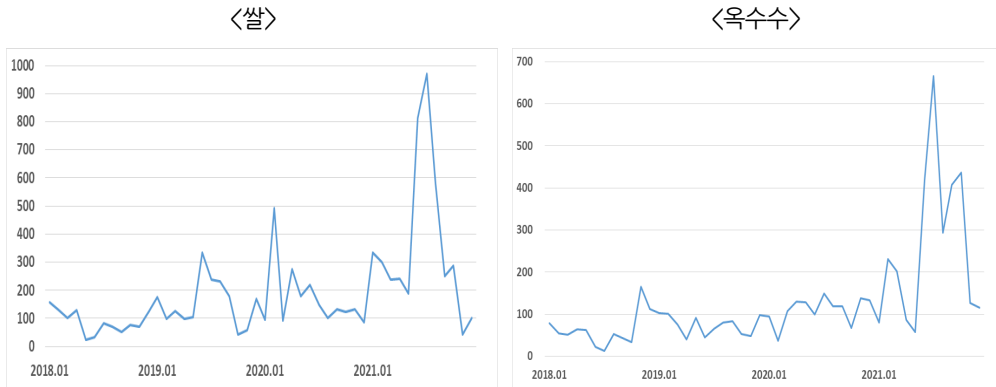
2020/21년 곡물생산을 평년 수준으로 보았을 때, 옥수수 상대가격의 상승은 북한주민의 소득 하락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국경봉쇄와 이동 통제 등으로 시장활동이 위축되면서 주민들의 소득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싼 쌀 대신 옥수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옥수수의 상대가격이 상승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종민(2022)은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공식과 비공식 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2015~17년 중 89.3%에서 2018년 이후 78.0%로 10.6%p나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제재 강화 이후 북한주민의 경제 여건이 어려워졌음을 시사한다. 2020년 국경봉쇄 이후 북한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북한주민의 소득이 이전보다 더욱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시장가격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권태진(2018)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곡물이 시장을 통해 대량 유통되고, 무선 통신을 통한 정보가 신속히 교환되면서 지역 간 곡물 가격의 차이가 축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즉, 곡물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지역 간 차이거래의 여지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림 3]에서 2021년부터 이전과는 다른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은 평양, 신의주, 혜산 세 지역 간 가격의 표준편차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18~20년까지는 가격 격차가 크게 확대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다가, 2021년부터는 큰 폭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⁶⁾ 또한 지역 간 가격 격차가 발생한 이후 수렴되는 기간도 길어지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추세는 국경봉쇄와 지역 간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북한시장의 효율성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북한의 지역 간 곡물 가격의 표준편차 추이

(단위: 북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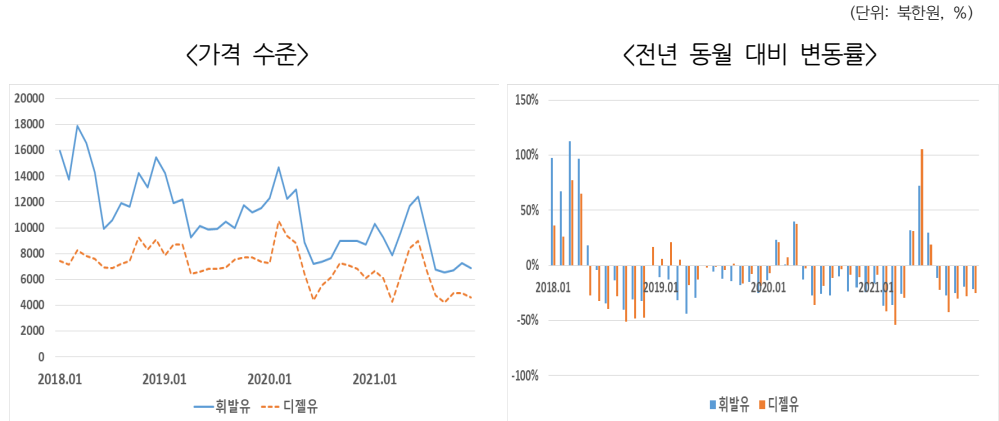
자료: KDI 데이터.

2. 유류제품

휘발유, 경유 등 유류제품은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가격의 변동폭도 점차 축소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하락세는 유류제품에 대한 UN 제재 내용을 감안할 때,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UN 안보리는 2017년 12월에 채택한 UNSCR 2397호를 통해 유류제품의 대북 수출량을 50만배럴로 제한하였다. 이는 제재 직전 2016년 정제유 수입량인 215만배럴(28만톤)의 약 1/4에 해당하는 수치로, 만일 이러한 제재조치가 실효적으로 집행되었다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유류제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을 것이다.

6) 일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이동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가격 격차가 커지는 품목이 분명하게 관측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지역간 상거래가 주로 사람의 이동보다는 차량을 통한 배송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그림 4] 북한시장의 유류제품의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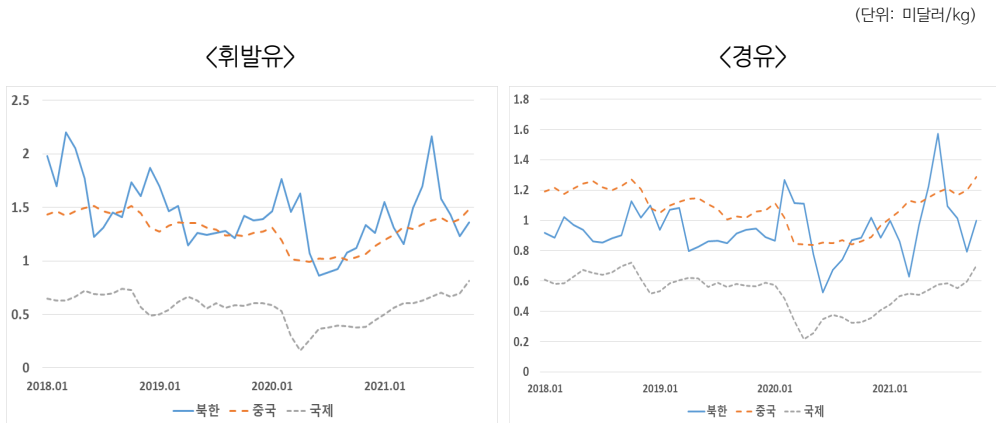


자료: KDI 데이터.

예측과는 다른 하락세에 대해 주로 두 가지 요인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제유가 밀수 등의 경로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석진(2021)은 UN 전문가 패널 자료를 기초로, 북한에 공식적으로 허용된 수입 물량과 밀수한 물량을 합하면 북한 내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의 유류가격을 중국 및 국제 가격과 비교해 보면, 이러한 주장에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추세적으로 중국 가격을 따라가고 있다. 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의 유류제품이 북한으로 충분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 간 가격 수렴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휘발유의 경우는 북한 가격이 중국에 비해 다소 높게 형성되었고, 경유는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제품 특성에 따른 마진 폭, 품질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생산활동 위축 및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동 감소의 영향으로 유류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다는 것이다(최지영, 2021). 북한 내부의 이동량 감소는 개연성은 높지만 이를 포착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산업별 생산량 변동은 한국은행 성장률 추정치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제조업 성장률은 2017년 이후 지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는데, 특히 중화학공업의 경우는 2017년 -10.4%, 2018년 -12.4% 등 두 자리 이상의 급격한 축소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생산활동의 위축은 에너지 소비 감소로 이어지면서 유류가격 하락을 유도하였을 것이다.

[그림 5] 북한 유류제품의 시장가격과 국제가격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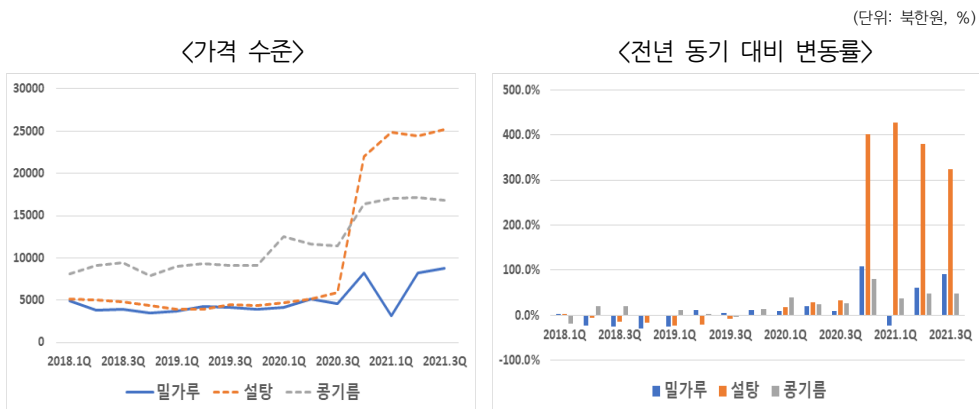


자료: KDI 데이터; CEIC; 석유공사.

3. 수입산 식료품

국경봉쇄의 영향은 수입산 식료품의 가격 추이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국경봉쇄로 무역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밀가루, 설탕, 콩기름 등의 식료품 가격은 2020년 3분기 기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그림 6] 북한시장의 주요 수입산 식료품의 가격 추이와 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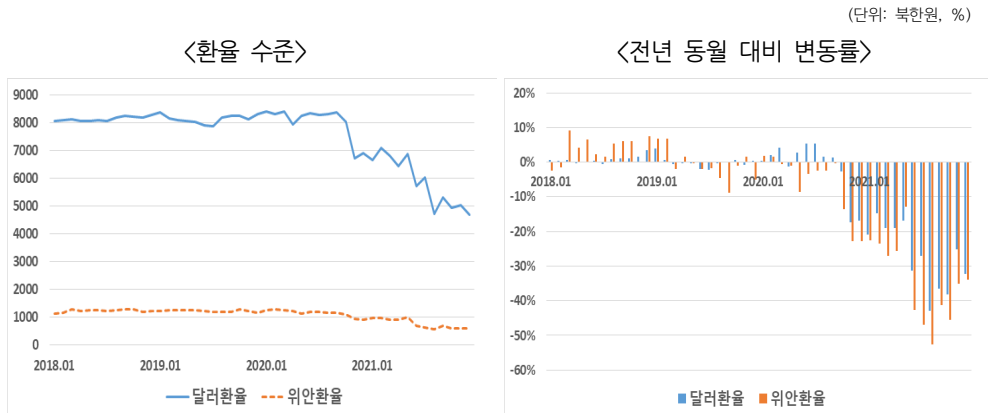
자료: 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동향」, 각호.

100~40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입산 식료품의 급격한 가격 상승은 다른 한편으로 앞서 언급하였던 곡물 가격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개입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곡물의 경우는 당국이 비축분을 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거나, 무상배급 등의 방식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반면, 수입 식료품의 경우는 당국이 공급을 통해 시장가격에 개입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II. 시장환율

2020년 국경봉쇄 이후 북한 물가에서 나타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환율의 하락(북한원화 강세)이다. 북한 원화의 환율은 2013년 이후 달러당 8,000원 선에 안정된 이후, 국경봉쇄 이전까지 7년 넘는 기간 동안 사실상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0년 11월에 6,000원대로 낮아진 데 이어, 2021년 중순 이후 5,000원대까지 하락하였다. 2021년의 위안화 환율은 달러에 비해 더 큰 하락을 보였다.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북한시장 위안/달러 재정환율의 위안화 가치는 국제시세에 비해 더 낮게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경봉쇄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외화가 부족해지면서 환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정반대의 패턴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7] 북한시장의 달러, 위안 환율 추이



자료: KDI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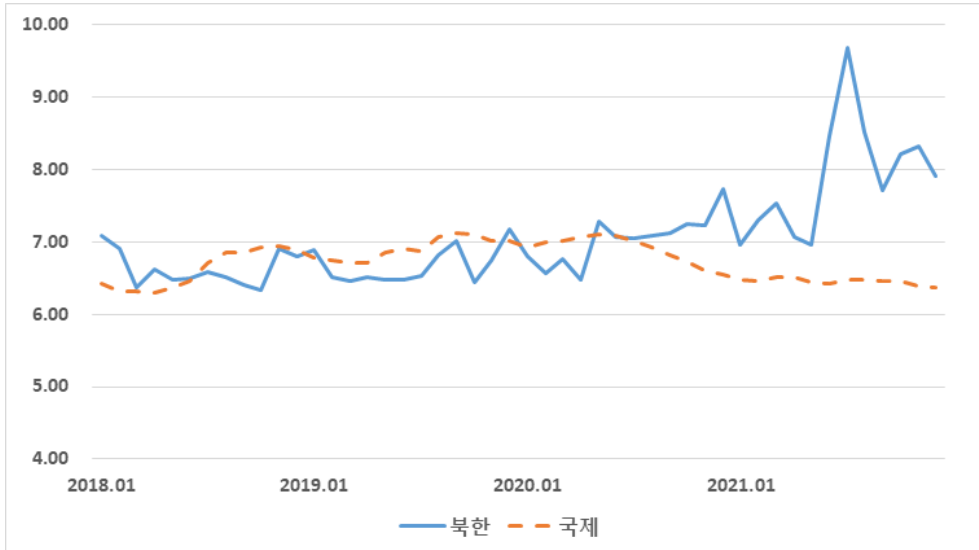
북한원화 환율의 하락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경봉쇄라는 초유의 사태가 외화와 원화 수급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서론에서 두 가지 가정을 제시하였듯이 봉쇄 상황에서 외화와 원화의 공급이 크게 변화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공식, 비공식 무역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외화 공급이 크게 늘거나 줄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심각한 경기 위축 상황에서 원화 공급을 급격히 줄였을 가능성도 적다. 일부에서는 제재의 영향으로 화폐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⁷⁾ 주요 근거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돈표’가 언급된다. 돈표는 제조된 품질이 일반 지폐에 비해 떨어지고, 과거 80년대 이후 외화 교환 수단으로 발행되었던 ‘외화바꾼돈표’와는 달리 국내 화폐를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폐 발행을 위한 원재료 조달의 어려움으로 화폐 발행이 원활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재 부족이 일시적 발행의 차질을 초래할 수는 있어도, 2년 가까이 이러한 문제가 지속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북한 당국이 아무리 외화 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물자라면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도입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율 하락은 국경봉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공급 측면이 아닌, 원화와 외화의 수요 측면의 변화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즉, 어떠한 이유로 원화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 반면, 외화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경봉쇄로 인해 외화결제 수요가 적어지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낮아졌을 것이다. 또는 북한 당국이 외화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실행함에 따라 기업 간 거래에서 북한 원화에 대한 수요가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외화 사용 금지에 대한 명확한 지시가 공식적인 문서나 내부 증언을 통해 확인된 바는 많지 않다. 북한 당국은 오래전부터 공식적으로는 항상 외화 사용 금지를 말해 왔기 때문에, 올해 통상적인 지시의 범위를 넘어선 특별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다만, 환율 하락의 추세를 보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20년 11월과 2021년 6~8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단절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시기에 북한 당국의 외화와 관련된 모종의 조치가 있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2020년 국경이 봉쇄된 이후 북한 시장환율과 국제시장의 시세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그림 8 참고). 이는 북한시장 내에서 외화의 재정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국제시세를 제 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2021년에는 북한시장에서 국제시세에 비해 위안화의 약세가 두드러진다. 이는 북한시장 내에 유통되는 외화의 통화량 중 달러 대비 위안화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7) 이에 대한 주요한 논의는 「KDI 북한경제리뷰」(2021년 11월호)의 「북한의 역달러라이선: 실태, 함의 그리고 전망」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림 8] 북한시장의 위안/달러 환율과 국제시세와의 비교



자료: KDI 데이터; Fred Economic Data.

III. 평가 및 전망

2021년 북한의 시장 물가 및 환율의 추세는 국경봉쇄의 장기화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난 것으로, 일반적인 예측을 벗어난 부분이 많았다. 우선 경제제재와 국경봉쇄와 같은 부정적 외부충격은 통상 환율과 물가 급등을 초래하는 반면, 북한은 두 가지 경제충격을 동시에 겪었음에도 환율은 하락하고, 곡물 가격을 중심으로 한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갔다.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환율 하락(원화 강세)은 수입 물가를 낮추는 데 반해, 북한의 경우는 환율 하락과 수입 식료품 가격 급등이 동시에 관찰되는 특이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2020/21년 곡물 생산 악화로 식량 가격 상승이 예측되었으나, 식량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고, 유류가격 역시 제재로 인한 상승 예상과는 달리 2018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예상에서 벗어난 추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란 어렵다. 다만, 2021년에 관찰된 물가 추세를 통해 북한경제에 관한 다음의 사실들은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국경봉쇄라는

특수한 상황때문에 북한 당국의 정책 개입의 여지가 늘었다는 것이다. 환율 추세를 보면 2018년 제재 강화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었지만, 국경봉쇄가 1년이 가까이 지속된 시점부터 큰 폭의 하락이 관측되었다. 북한 당국에 있어 국경봉쇄는 경제적인 위기인 동시에 시장환율과 국정환율의 차이 해소, 외화통용 완화 등의 오랜 정책적 목표를 이룰 기회도 함께 제공한다. 국경봉쇄 상황 때문에 경제 주체는 외화 보유보다는 실물 또는 원화 보유의 유인을 더 가지게 되고, 여기에 당국의 일정한 개입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수준까지 환율이 하락된 것으로 보인다. 곡물 가격의 안정화 추세 역시 당국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당국이 인위적으로 공급을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 식량 가격은 안정화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수입 식료품 가격은 급등한 추세를 보였다. 둘째, 주민 소득의 하락과 산업생산의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40% 수준이었던 쌀 대비 옥수수의 상대가격은 2021년 50~60%까지 상승하였는데, 이는 시장활동 위축에 따른 주민 소득 감소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UN의 유류제품 수입 제재에도 불구하고 정제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은 밀수를 통한 공급 요인과 함께 산업생산이 위축된 증거로 볼 수 있다. 마지막, 북한시장의 효율성이 약화되고 있다. 북한의 지역 간 곡물 가격의 표준편차가 2021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시장의 위안/달러 재정환율은 국제시세와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 향후 북한의 시장 물가 및 환율의 추세를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 이는 2020년 시점에서 2021년을 예상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매우 어려운 작업일 것이다. 다만, 2021년 분석을 근거로 다음 세 가지 요인이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국경봉쇄의 해제 여부이다. 올해 1월 16일 북중열차 운행이 재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인적 교류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방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최근 개최된(2월 8~11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방역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전면적으로 국경을 개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북한시장에서는 외화와 관련하여 크게 두 방향의 힘이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한 방향은 환율의 하락으로 원화와 실물을 보유하는 것보다 외화를 보유하는 것이 손해가 되므로 외화의 선호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향후 국경이 개방되고, 외화 수요가 늘어나 환율이 상승할 것을 예상하여 외화 보유를 늘리려는 방향이다. 결국 국경 개방의 시기와 정도에 따라 시장 내에 존재하는 두 방향의 힘 중 한 방향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만일 국경 개방이 확대되는 방향이라면, 환율은 대폭적으로 인상(북한 원화 약세)되고, 반대로 수입 식료품 가격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는 북한 당국의 정책 방향이다. 제8차 당대회에서 발표된 정책 기조를 기준으로 볼 때, 북한의 향후 경제정책은 자력갱생과 도소매 등 유통부문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총화 보고에서 “새로운 국가경제 5개년 계획의 기본중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다”이라고 밝히면서 “상업봉사활동 전반에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 조절 통제력을 회복”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기존 시장화 진전의 핵심 부문인 도소매 등 유통부문과 사실상의 사유화 부문을 후퇴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물가와 환율의 불안정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경제의 회복 여부이다. 현재와 같이 주민의 시장소득과 산업 생산활동이 위축된다면 공급 여건이 다소 악화되더라도 수요도 함께 감소하여, 쌀, 유류제품 가격에 큰 변동이 없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추세가 관찰된다면, 해석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단순히 가격이 안정된 것이 양호한 시장 상황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의 후생이 감소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권태진, 「북한의 농업부문 시장화 실태와 전망」, 『시선집중 GSnJ』, 제249호. GSnJ, 2018.
- 김석진,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와 그 경제적 의미」, 『온라인시리즈』, CO 21-12, 통일연구원, 2021. 4. 12.
- 『뉴시스』, 「북, 식량난에 군 비축미 판매... 주민 불만 고조」, 아사히, 2021. 8. 9.
- 북한경제협의회, 「북한의 역달러라이제이션: 실태, 함의 그리고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21년 11월호, 2021.
- 『이데일리』, 「북, 곡물부족에 전시 비축미까지... 연락선 복원을 김정은 요청」, 국정원, 2021. 8. 3.
- 이종민, 「2010년대 북한 주민들의 소득과 지출, 이정철 외, 『북한사회변동 2021』, 서울: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02(근간 예정).
- 최지영, 「2020년 북한시장의 물가와 환율 평가와 2021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21년 1월호, 202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 시장의 품목별 가격」, 『북한농업동향』, 각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가격동향」, 『중국농업동향』, 각호.

<웹사이트>

- 석유공사(<https://www.petronet.co.kr/v3/index.jsp>, 접속일: 2022. 1. 15).
- CEIC data(<https://www.ceicdata.com/ko/indicators>, 접속일: 2022. 1. 2).
- FAO stat(<https://www.fao.org/faostat/en/#home>, 접속일: 2022. 1. 10).
- IMF Primary commodity Price system (www.imf.org/en/Research/commodity-prices 검색일: 2022. 1. 15).
- FRED Economic Data(<https://fred.stlouisfed.org/series/EXCHUS>, 접속일: 2022. 1. 5).